

철도망 열악한 호남 나몰라라...수도권·영남 편익만 높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배 내리는 호남선'

국도교통부가 지난 2월 3일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이 최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호남권 철도사업이 줄줄이 누락됐다. 목소리가 높았지만, 공정화 등 의견 수렴 결과 보성~목포 단선전철화 사업(82.5km, 사업비 1702억원)이 추가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정부의 철도기반시설에 대한 미래 투자가 수도권, 영남권 등 기투자지역에 집중되면서 편익을 높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한 광주·전남지역은 기본적인 철도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군산~목포 서해안철 언급도 없어

광주~대구 내륙철도 '검토사업' 포함...익산~여수 고속철 추진 난망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중심 36개 신규사업 =정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진 방향을 ▲기존 철도망의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36개 신규사업을 분석해보면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 충청권·영남권 지역 광역통행 철도망 확대, 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 비전철 구간 전철화, 새만금·구미·동해·인천·부산 등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국토부가 가장 비중을 둔 것은 수도권, 충청권 등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10개 사업(215.3km)에 17조5242억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경부고속선의 적기 완공과 중앙선, 수서~광주선, 경전선, 장항선, 경북선 등 일반선의 고속화로, 11개 사업(799.3km)에 11조9365억원이 쓰인다. 그밖에 어천 연결선, 지제 연결선, 남부내륙선 등 5개의 지역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336.5km)에도 8조7678억원이 배정돼 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3개 구간을 제외하면 광주·전남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없는 것이다.

◇호남고속철 2단계 언급 없이 계획 반영 요청 사업 줄줄이 누락=전남도는 지난 2월 제3차 계획

안에서 누락된 목포(서울)~제주해저터널(16조 800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군산~목포 서해안철도(3조5000억원), 보성~목포 단선전철화 등 5개 사업을 포함해줄 것을 줄곧 촉구해왔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에 반영된 것은 보성~목포 단선전철화 뿐이다. 신규 사업 명단에 오른 경전선 진주~광양 구간, 광주송정~순천 구간은 이미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등에 대해 이번 계획에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완공 추진이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제3차 계획에서는 "기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대신했다. 광주~대구 내륙철도 사업은 제2차 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검토사업에 포함됐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등 전북과 전남을 이으면서 전국철도망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의 추진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목포~제주 해저고속철도의 경우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추후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정치권은 뭐했나 '따가운 눈총'

사업 누락 무대응 지적에 "정부 압박...야당 한계 역부족" 토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호남권 철도 사업이 줄줄이 누락되면서 지역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의 눈길은 따갑다.

그동안 수도권 호남권 철도 사업 누락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주승용, 김동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내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지역 정치권이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정부에 호남의 철도 기반 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압박했는데도 야당의 한계를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주승용 의원은 19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정부의 독주를 막지 못해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야당의 한계를 실감하게 됐다"며 "정권 창출만이 호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철도산업법 개정

을 통해 10년 단위 계획을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이번엔 누락된 사업의 경우,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과 관련, 단 줄의 논평도 내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당 모두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면서도 호남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망 구축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된 대안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한심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이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정권 창출이 이뤄진다 해도 호남의 철도 기반 시설 확충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민주 전당대회 D-70 당권 경쟁 차분...최고위원은 벌써 후끈

권역별 위원 5명 지도부 진입키로

광주 박해자·이형석·이병훈 거론

전남 이개호 도당위원장 확실히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방식으로 선출되는 최고위원 레이스도 달아오르고 있다.

19일 더민주에 따르면 당 대표 경선 주자들의 경쟁은 다소 차분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오히려 최고위원 경선을 준비하는 주자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벌써 경쟁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더민주 이번 전당부터 권역별 대표 5명을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진입시키기로 했다.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 등 5개 권역에서 1명씩이며,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호선을 통해 권역별 대표를 뽑는다.

이 때문에 시도당위원장 경선은 지도부 진입 인사들을 가리는 '전대 예비경선'의 성격이 갖게 됐다. 서울에서는 3선의 김영주의원과 재선의 서영교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3선 구청장인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지자체장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온다.

인천에서도 재선인 박남춘·윤관석 의원과 함께 박우섭 남구청장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에서는 원의 인사들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오른쪽 첫 번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박해자 전 의원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복구에 출마했던 이형석 후보와 동반에 출마했던 이병훈 후보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이름도 나온다. 전남에서는 유일한 현역인 이개호 의원이 도당위원장이 되는 게 확실히 되는 가운데 일부 원

외 인사들이 주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에서 깜짝 선전한 부산의 경우 김영춘 시장 위원장을 비롯해 김해영·박재호·전재수·최인호 등 현역의원 5명에게 모두 기회가 열려있다. 부분별 최고위원은 여성·청년·노인·노동·민생 각 부문에서 1명씩 5명을 선출한다. 전국여성위원

장·전국청년위원장 등 전국위원장을 선출하면, 그 위원장이 자동으로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방식이다. 우선, 양항자 전 삼성전자 사무가 여성위원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한, 성남시 분당갑에서 당선된 김병관 의원은 청년위원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역 현안 힘 모으자

의원·지자체장 내달 5일 간담회

광주·전남 국회의원회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당 구분 없이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 달 5일 서울에서 현안 간담회를 한다. 애초 2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도시락 회담'을 하기로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됐다.

광주 8명·전남 10명 등 지역구 의원, 광주·전남 출신 비례대표 의원 7명, 광주가 고향인 심재철 국회부의장, 광안 출신 우윤근 국회 사무처장 내정자가 초청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의원은 새누리당 신보라·조현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최도자 의원, 정의당 추혜선·윤소하 의원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18명 가운데 16명이 국민의당,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1명씩이다. 정당 구분 없이 지역 출신 의원과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도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인사를 나눈 뒤 시·도 주요 현안과 국비 지원 건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 /최권필기자 cki@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TALK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친구 추가하세요!

1. 카카오톡 친구 탭
2. 우측 상단의 친구찾기 버튼
3. ID검색에서 아이디 입력 또는 QR코드 스캔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호주 - 시드니 & 멜번

① 최대 10만원 교통비 지원

[ALL포함] 사전 예약 할인 제공

클래식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PAW400_1 2,640,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시드니/골드코스트 4성급
- 🕒 요일 : 매주 토/일/월
- ✈️ 항공 : 아시아나 항공(OZ)/대한항공(KE)
- 🎁 특전 : 사전예약 최대 커플당 50만원 할인 호주산 와인 1병 증정
- 🍷 특식 : 캠티크 디너 크루즈

② 커플당 양모 이불 1채 증정(골드코스트 상품 한정)

[ALL포함] 카페투어+그레이트 오션 로드

클래식 시드니/멜번 6일, 7일

PAW405_C 2,420,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하나투어 시내 단독호텔 (4성급)
- 🕒 요일 : 매주 토/일/월
- ✈️ 항공 : 아시아나 항공(OZ)/대한항공(KE)
- 🎁 특전 : 사전예약 최대 커플당 40만원 할인 멜번 로맨틱 카페투어 포함
- 🍷 특식 : 고품격 선상 디너 [\$80상당]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일출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대한 자유로움에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비용은 안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출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시장] 여행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합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급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여행 자재 ●철수 권고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